



6.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명제적 진리와 효율성에 대한 타당성 주장과 결합된 다른 행위와 마찬가지로, 규범의 올바름과 주관적 진실성에 대한 타당성 주장과 결합된 발언도 합리성의 중심 전제, 즉 근거가 제시되고 비판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

- ① 언어 능력의 능동해서 반드시 발언 기회가 더 많이 부여될 수는 없다.
- ② 모든 참여자의 동의로 합의된 규범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 ③ 합리적 근거 제시 능력은 담론에서 필요한 화법 중 하나이다.
- ④ 고립된 주관을 벗어난 채로 담론에 참가하여 상호주관성을 이뤄야 한다.
- ⑤ 담론의 주체들은 전문 지식의 유무로 발언 기회를 제한받지 않는다.

7.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신께서 정해 주신 초소라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신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삶의 모든 행위를 할 때 그의 부르심에 주목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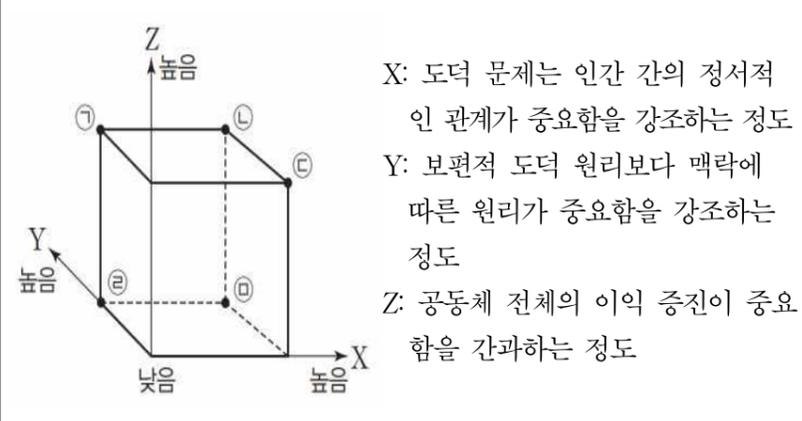
을: 종교에서 인간이 자신의 두뇌의 산물에 의해 지배되듯이,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인간은 자신의 손의 산물에 의해 지배된다.

- ① 갑: 직업은 모두 귀하지만 정신노동이 더 고결하다.
- ② 갑: 태초의 구원받은 이들은 경건하고 거룩한 행위자이다.
- ③ 을: 공산사회의 노동은 자연으로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 ④ 을: 공산사회에서는 균등 분배만이 바람직한 분배이다.
- ⑤ 갑, 을: 이상적인 사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8. 갑 사상가의 입장에 비해 을 사상가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갑: 윤리는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인간의 행위를 지도하는 기술이다. 행복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등 일곱 가지 기준으로 그 양이 측정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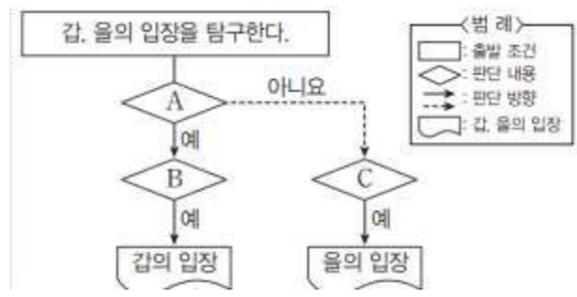
을: 도덕 문제를 권리와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의 보살핌과 책임의 문제로 보는 여성들에게 도덕성 발달은 책임과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가 변화하는 것과 연결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9. 갑, 을의 입장을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더 많은 재능을 타고난 이들은 더 적은 재능을 타고난 이들의 선에 공헌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천부적 재능을 훈련하고 사용한다는 조건하에서 더 많은 이익을 획득하도록 장려된다.  
 을: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 이전, 불의의 교정 원리에 의해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하다. 각 개인의 소유물이 정당하다면 소유물의 전체 집합도 정당하다.



- ㄱ. (A): 차등의 원칙은 정형적 원리에 따른 원칙이 아니다.
- ㄴ. (B): 정의의 원칙은 사회 제도와 결사체를 내부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 ㄷ. (B): 정의의 원칙을 만들 때는 그 당사자의 인지적 조건이 전제가 된다.
- ㄹ. (C): 유일한 재화의 최초 취득의 수단은 노동으로 타인이 취득할 양을 남겨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전쟁에 뿌려진 씨앗은 이번 생에 받는 것이고, 다음 생에 거둘 열매는 이번 생에 행하는 바로 그것이다.

을: 우리가 무엇인가를 순수하게 인식하려면 육체에서 벗어나야 하며 오직 영혼만을 사용하여 사물 그 자체를 보아야 한다. 죽었을 때라야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 ① (A): 번뇌 망상인 업이 사라지면 윤회할 수 있다.
- ② (A): 불성이 같은 만물과 하나 됨이 윤회의 첫걸음이다.
- ③ (B): 지혜로운 자는 죽음 이후 내세로 가는 것을 환영한다.
- ④ (B): 삶과 죽음은 다른 차원이므로 분리되어야 한다.
- ⑤ (C): 죽음 이후에 육체는 영혼처럼 소멸되지 않는다.



16.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의사의 중요한 임무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는 것이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회복의 희망이 없는 병으로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릴 때,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이고 자율적인 결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에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것은 환자 자신과 가족의 고통을 덜어 주고 막대한 의료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다.

을: 의사의 가장 기본적이며 고귀한 임무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일이다. 그런데 의사가 환자를 도와서 죽게 한다면 그 결과로 의사 자신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무감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체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로 변화될 것이다.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게 되면 수많은 비윤리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 ① 갑: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의료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
- ② 갑: 회생 불가능한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는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을: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 ④ 을: 안락사를 허용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⑤ 갑과 을: 적극적 안락사와 달리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될 수 있다.

17.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비록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고 있다. 그 법을 어기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은 그 행위의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인 성격과 그 행위의 법적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인 공유된 정의관에 의해 표현된다.

- ① 시민 불복종의 주체에게 법적 제재를 줄이는 등의 참작은 정당하다.
- ② 시민 불복종으로 어기려는 법의 이외의 법도 어기는 것이 가능하다.
- ③ 소수의 세력이 합법적인 항거가 불가할 때, 최후의 원칙은 목살된다.
- ④ 정치 권력을 지닌 다수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불복종은 정당하지 못하다.
- ⑤ 많은 불복종이 일어나면 발생할 해악에 대비해 불복의 효율을 따져야 한다.

18.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이 한 고을을 얻으면 건방져지고 사치스럽게 되어 절약하지 않고, 재물을 함부로 써서 빚이 날로 불어나면 반드시 욕심을 부리게 된다. 욕심을 부리면 아전들과 짜고 일을 꾸며 이익을 나눠 먹게 되고, 이익을 나눠 먹다 보면 백성들의 고향을 짜게 된다. 그러므로 절약은 백성을 사랑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일이다.

- ㄱ. 공직자는 대탐(大貪), 탐욕(貪慾)을 지양하여야 한다.
- ㄴ. 수령은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공사를 분리하면 안된다.
- ㄷ. 일상적 덕목으로서의 청렴을 습관화하여 업무에 매진하여야 한다.

-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19.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통일은 우리 민족의 시대적 과제이므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통일은 강압이나 무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을: 저도 동의합니다. 아울러 통일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닌 우리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갑: 맞습니다. 특히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남북한은 상호 협력하면서도 주변국들이 통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을: 아닙니다. 주변국들은 남북한의 입장보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우선시할 것입니다. 통일하고자 하는 남북한의 공감대 형성만으로도 통일을 위한 준비는 충분합니다.

- ① 통일 과정에서 남북한만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 ② 남북 간 통일은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 ③ 통일은 민족 구성원 모두의 이익이 되어야 하는가?
- ④ 주변국에 따라 통일 여부를 달리 해야 하는가?
- 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시대적 과제인가?

20.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와 어떤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이냐가 우리의 의무에 결정적인 차이점을 만들어 낸다는 견해를 정당화해 줄 타당한 근거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을: 고통받는 사회는 팽창적이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은 반면에,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는 데 필요한 물질적, 과학 기술적 자원들을 결핍하고 있다.

- ① 갑: 상대적 빈곤과는 달리 절대적 빈곤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원조의 의무는 충족된다.
- ② 갑: 이익 평등 고려의 원리를 공평성의 관점에 입각해서 원조에 적용하는 것은 세계시민의 의무이다.
- ③ 을: 개인 또는 국가 모두 원조의 주체로서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 ④ 을: 고통받는 사회는 인적 자원과 기술 수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향상하도록 도울 수 있다.
- ⑤ 갑과 을: 원조의 주된 목적은 인류 전체의 복지 증진이다.

지금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능을 향해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 등급컷
- 1등급: 41
- 2등급: 37
- 3등급: 32

